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알림

1. 말씀 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 11월호가 나왔습니다. 남플 도서관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 일대일 제자양육 동반자과정 수료식 안내

오늘 2부 예배시 일대일 제자양육 동반자과정 수료식이 있습니다.
수료자- 김선영 집사, 오행복 집사

• 구자역 목사 초청 찬양집회

날짜 : 10월 25일(주일) 오후 6시 * 장소 : 대예배실

• 큐티(말씀 묵상) 세미나

날짜 : 11월 5일(목) ~ 6일(금) * 시간 : 오후 7시
강사 : 김은혜 사모(큐티 전문 강사)
신청 : 교회 로비 및 온라인 신청

• 통역팀에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 봉사 시간 : 주일 2부 예배 / 한 달에 한 번 섬김도 가능합니다.
* 문의 : 담임목사

• 방송팀에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 봉사 시간 : 주일 2부(오전 10시 30분) 예배
* 문의 : 윤성민 전도사

• 재정부 안내

2027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 각 위원장, 사역장 또는 팀장님께서 재정부에서 준비한 양식을 수령하셔서 2027년 한해 사업 계획과 관련 예산을 10/31까지 재정부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1월중에 재정위원회와 사역장의 협의를 통해 최종예산이 확정됩니다.
* 문의 : 구자현 장로

• 성가대 찬양 연습

11/1(주일)부터 매주일 저녁 추수감사절 찬양과 성탄절 칸타타 연습이 시작됩니다. 성가대원이 아니더라도 기쁨으로 주님의 오심을 함께 준비하며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들을 초대합니다.
* 연습 : 매주, 주일 저녁 7시, (6시 저녁식사)

• 교우동정

[등록] 이혜순 집사님 (딸 Christina) (973-229-7618),
이정화 / Calvin Yi (아들 Ethan) 성도님 가정 (404-771-6443)
새로 등록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주] 정성엽/윤은주 장로님 가정, 윤덕기/윤경란 권사님 가정이 미시건주로 이주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 한어권 장년 모임

예배(Sunday Service) / 1부-8:00 am, 2부-10:30 am
새벽기도회 / (화)~(토) 6:00 am.
<수요 중보기도회> (Wednesday) / 6:45 am
<목요 에스더기도회> (Thursday) / 10:00 am

• English Ministry (영어예배)

주일예배 (Sunday Service) / 10:30 am

• Youth (중고등부)

Sunday Service (주일예배) / 10:30 am

• Sunday School (주일학교)

Sunday Service (주일예배) / 10:30 am
<예수님이랑 나랑> / 월-토

사명 선언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사랑을 경험한 예배자들이

말씀으로 양육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지난주 헌금 통계

일반헌금	\$14,595.00	십일조: \$10,390.00	월삭예배: \$1,000.00
		감사: \$650.00	주일: \$1,673.00 기타: \$882.00
지정헌금	\$2,320.00	목 장: \$320.00	중남미.국내: \$1,500.00
		건 축: \$500.00	

**** 온라인 헌금/우편 송금 내역은 다음주 통계에 반영됩니다.**

제45권 42호
2026년 10월 18일



2026년도 표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습3:17)

남플 G.P.S

God's Word
Prayer
Service

담임목사

권태홍
Rev. TaeHong
Kwon

남부 플로리다
South Florida

감리교회

Global Methodist Church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엡5:19)

P. the Poor in Spirit
O. Oneness in Lord's Hand
E. Encouragement in Christ
M. Mission-oriented Life

남부 플로리다 교회는
아름다운 시(P.O.E.M)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입니다.

6501 W. Commercial Blvd. Tamarac, FL 33319

교회(954)597-0735

mcosf.org

<성령강림후 스물한번째주일> 예배순서

1부(8:00am)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

2부(10:30am)

인도자 Presider

- ▲ 송영 Doxology / 살아계신 성령님
- ▲ 참회기도 Prayer of Repentance
- ▲ 사죄의선포 / 인도자

-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찬송 Hymn / 365장(통484)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기도 Prayer / 이경천 집사

찬양 Choir / 호산나 찬양대

- 새 노래로 찬양하라 -

교회소식 Announcement 영상광고

- ▲ 봉헌 및 봉헌기도 Offering 다같이

- ▲ 성경봉독 Scripture 히(Heb) 4:16..... 다같이

설교 Sermon 권태홍 목사

< 화살 기도 >

Arrow Prayer

- ▲ 파송찬송 Closing Hymn/ **나의 기도하는 것 보다**

- ▲ 축도 Benediction 권태홍 목사

▲ 표에는 일어섭니다.

2026년 10월 예배를 섬기는 분들

	예배 안내	헌금/안내	성경 봉독	대표기도	친교봉사
오늘 10월 11일	1부	예수마을 목장	담당자	이경천집사	물댄동산 목장
	2부			손은명권사	
다음주 10월 18일	1부	예수마을 목장	담당자	유영재장로	베뢰아 목장
	2부			유영재장로	

설교요약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회와 새벽기도회 등 정해진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녀 양육과 직장, 사업 등 여러 형편으로 인해 충분한 시간을 내어 기도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병원에서 진단 결과를 기다리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녀가 걱정될 때 “주님, 우리 아이를 지켜주세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짧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화살 기도라고 합니다. 화살이 궤를 향해 날아가듯,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즉시 올려 드리는 기도입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에 빠져 가던 베드로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마태복음 14:30)라고 외쳤고, 맹인 바디매오는 예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마가복음 10:47). 이들의 기도는 길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길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화살 기도의 세 가지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 일관성입니다.

한 번 뜨겁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삶이 더욱 중요합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화살 기도의 삶입니다.

둘째, 방향성입니다.

화살이 궤를 향하듯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생기면 문제만 바라보며 염려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시편 121편 2절은 말씀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믿음은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셋째, 담대함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응답하실지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화살 기도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담대하게 기도한다는 것은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이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

<설교 요약>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살 기도는 긴 기도를 대신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리를 소중히 여기면서,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호흡을 이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의지하여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 제 길을 인도해 주세요.”

이 짧은 기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질 때뿐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응답만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일상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화살을 쏘아 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짧지만 진실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깊이 동행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 < 나눔 질문 >

- 1)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짧은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느꼈던 경험이 있습니까? 그때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 2)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함으로 마음의 평안이나 지혜를 얻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일상의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느헤미아가 왕 앞에서 곧바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나도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기 위해 어떤 습관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 4)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께 특별히 기도하며 말거 드리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금주 애찬 섬김

	금주 (10월 18일)		다음주 (10월 25일)
	이미셀권사		김학웅. 김정희권사
	범사감사		생일감사
	물댄동산목장		베뢰아목장